

환경인의 신사(紳士)

이승무(李承務) 박사(1)

글/사진 : 박 창 근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그동안 이 회보에 연재된 필자의 ‘인물로 본 환경야사’를 애독해 온 한 ‘환경기술인’이 전화를 했다.

“박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의 글을 애독하고 있는 경남지역 ‘환경기술인’입니다. 회보가 오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환경기술들은 제일 먼저 위원장님의 칼럼을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위원장님의 칼럼에 대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번 호에는 어느 환경 원로가 소개되는가? 하는 내기인데요. 도박성 내기는 아니고요. 퇴근해 맥주 1,000cc 를 사는 것인데… 제가 전화를 한 것은 다음에는 누가 소개되는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소개되는 순서가 우리나라 환경원로님의 이름 ‘가나다’ 순인지? 나이 순인지?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소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우리 환경기술인도 소개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어느 환경기술인에 대한 전화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답해 주었다. 따라서 이 연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정한 몇 가지 원칙을 밝힌다.

1. 필자가 '60년대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해 오다보니, 이런 야사(野史)적인 이야기를 남겨야 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필자와 많은 교감(交感)을 가진 분이 소개되고, 사실의 정리를 위해, 실명(實名)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2. 이 연재는 칼럼 제목과 같이 ‘인물로 본 환경야사’이기 때문에, 야사(野史)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환경인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60, '70년대의 원로가 자연스럽게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3. 그분들 중에서 연세(年歲) 순으로 소개할까도 생각했지만, 애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연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이다. 즉, 'A' 라는 이야기가 끝나면, 'B' 로 이어지는 분을 소개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전환해, '甲' 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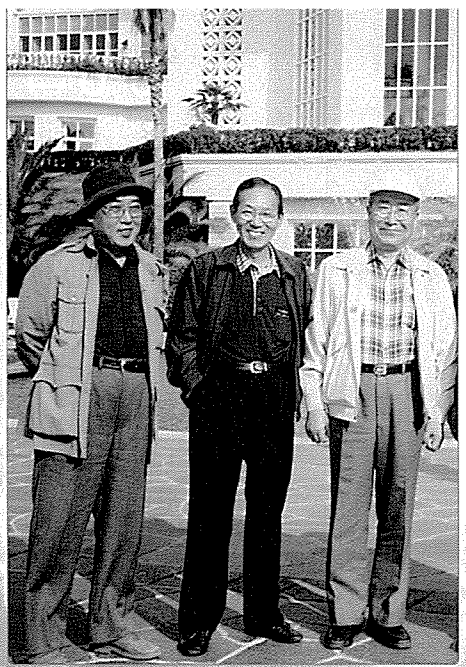


사진 설명:

‘한국코트벨’ 이달우 회장님이 제주도에 크게 조성한 ‘자연공원’을 방문했을 때의 기념사진으로 좌로부터 필자 박창근, 이승무 박사님 그리고 이달우 회장님.

1997년 10월 19일 찍음.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공학계의 원로이신 이승무 박사님을 소개한다. 글의 제목에 ‘환경인의 신사(紳士)’라고 붙인 것은 ‘이승무 박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양복 윗 포켓에 항상 꼽혀있는 붉은 색 Handkerchief다. 그리고 환경인 중에서 가장 옷을 멋지게 입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다. (옷 멋쟁이는 박로경 선생, 신웅배 박사도 있다.)

물론, 그래서 만이 ‘신사’는 아니다. 이승무 박사님은 신사답게 약속은 꼭 지키시고, 매사에 분명하시다. 그리고 80 고령이신데도, 생각이 진취적이시고 젊다. 말씀도 카랑카랑 gentle 하시다. 운전도 신사답게 법규를 100% 지켜, 운전 경력 40년 동안 큰 사고는커녕, 10년 이상 탄 자동차가 새 차 같이 깨끗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신사인 이승무 박사님의 환경 전공이 ‘신사’에 어울리지 않게(?) ‘쓰레기 대책’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신사다운지도 모르겠다.

이승무 박사님은 1956년 연세대학교 화학과와 195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대학원 화학과를 졸업한 이후, 1957년부터 1998년까지의 40여 년 동안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승무 박사님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 독성물질에 관한 연구와 폐기물 대책을 위한 연구, 활동에 진력해 왔으며, 특히 산학(産學)협동에 따른 폐기물 대책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폐기물 대책을 위한 학술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학회’ 창립(1983년 12월)을 시작으로, 폐기물 대책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로 ‘폐기물 대책 학회’를 창립하여, 당시 폐기물을 단순히 쓰고 버려지는 ‘것’ 정도로 인식하던 시민의식과 정부의 폐기물 대책 정책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학회는 매년, 4~5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였다. 특히, 폐기물 대책 중에서 한국적 실정과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소각 기술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6년 12월에 ‘한국소각 기술협의회’를 창립하여, 폐기물의 무공해 소각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였다.

지금도 거의 매일 일산 자택에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소각 기술협의회’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손수 챙기신다. 그리고 신사답게(?) 아직도 변함없이 줄담배를 피우신다.

(계속)